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비범한 평범 / 조수용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매거진 B를 창간한 디자이너가 쓴 브랜드 이야기이고, 출판 기념 북토크에 참석할 예정임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읽어주세요.
<p>p.6 들어가는 말</p> <p>저는 늘 (브랜드를) 꼭짓점이 4개인 사면체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건 실용성, 아름다움, 가격, 그리고 철학입니다. 실용적이고, 아름답고, 가격이 합리적이기까지 하다면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브랜드의 생각과 의식인 '철학'이 더해져야 비로소 브랜드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 철학에 공감하면, 설령 실용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심지어 가격이 비싸도 그 브랜드를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브랜드를 볼 때 주목할 것은 '시대를 읽는 생각과 철학이 있는가'이며, 그 철학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p> <p>결국 브랜드를 살펴본다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읽어내는 일입니다.</p>
<p>p.44 인스타그램: 진심 미디어, 중요한 것은 '돕고 싶은 마음'</p> <p>실제로 유튜브나 인스타에는 무료로 즐겨도 되나 싶을 만큼 공들여 만든 콘텐츠가 많습니다. 이용자가 특정 채널에 고마움을 넘어 미안함을 느낄 때, 채널이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형식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콘텐츠를 아무리 전문적으로 제작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결국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p>
책이 좋았던 이유와 감상에 대해 말해주세요.
어떤 브랜드를 좋다고 느낄 때, 왜 그렇게 느끼는지 명확히 짚어내기 어려운 점들을 적은 책. 매거진 B처럼 한 브랜드의 면면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점을 다르게 가져갔는지/어떤 고민이나 철학이 지금의 그 브랜드를 만들었는지를 다룬다.